

목각인형, 인생의 고난과 회한을 노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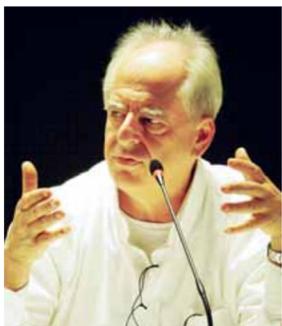
율리시스의 귀향·행운·사랑 이야기
흑백 영상·바로크 악기 절묘한 조화

남아공 거장 윌리엄 켄트리지 연출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질문”
‘더욱 달콤하게 춤을’ 영상 전시도



고악기 연주, 목각인형의 연기, 성악가의 노래가 어우러진 윌리엄 켄트리지의 '율리시스의 귀환'.

28일~29일 2016년 문화재단 공연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



연출가 윌리엄 켄트리지.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는 죽을 운명이었다.”

성악가의 노래와 함께 등장하는 첫 자막부터 강렬하다. 비올라다갑바 등 고(古) 악기의 연주, 흑백 애니메이션 영상과 더불어 또 하나의 낯선 주인공이 보인다. 목각인형이다. 7명의 연주자들이 자리한 단출한 무대. 목각인형과 이를 움직이는 인형극 배우, 오페라 가수 세 사람은 한몸처럼 움직이며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리하설 현장에서 공개된 윌리엄 켄트리지의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은 첨단 무대세트, 화려한 조명과 의상으로 무장한 어떤 대형 오페라 보다 울림과 감동을 주는 작품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사람 숨소리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목각인형(Puppet)의 숨을 쉬는 동작 하나로도 인생의 고난과 험난함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인형극 단체 헨드스프링컴퍼니 아드리안 콜라의 설명이



윌리엄 켄트리지의 '더욱 달콤하게, 춤을'

정확히 이해했다. 세상을 떠나기 앞서 온갖 회한에 빠진 늙은 '인형' 율리시스의 모습은 '인간보다 더 인간'같았다. 애처로워하는 아내 페넬로페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는 28일~29일(오후 6시) 예술극장 2에서 관객을 만나는 '율리시스의 귀환'은 16세기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동명 오페라를 연출가 켄트리지가 각색한 작품이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후반부를 토대로 20세기 중반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죽음을 앞둔 율리시스의 귀향, 행운, 사랑, 시간,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들려주는 작품이다.

1998년 초연된 이 작품은 200여회 이상 공연됐으며 이번 국내 첫 상연 후 11월 링컨센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켄트리지는 인종차별을 소재로 한 드로잉 애니메이션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그림, 영화, 연극,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작품은 켄트리지가 직접 디자인한 목탄화 애니메이션(때때로 실사 영상도 삽입됐다)과 정교한 목각 인형, 이를 움직이는 6명의 인형극 배우, 7명의 오페라 가수가 어우러져 만들어낸단다.

켄트리지는 '카르멘' 등 친숙한 오페라 대신 '율리시스의 귀환'을 택한 이유에 대해 “우선은 몬테니그로가 좋아하는 작곡가인데다, 기존 오페라와 달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점”을 꼽았다.

“직접적인 정치적 이야기보다는 '율리시즈'가 갖고 있는 인류와 인간에 대한 개념을 전하고 사랑, 시간, 행운 등 인류 전체의 포괄적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싸우는 율리시즈는 각국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서 싸우는 우리

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창한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따라오는 것들, 사회나 세계가 개인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켄트리지는 또 “왜 오페라에 인형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목각인형도 실제 인간처럼 심각한 연기를 할 수 있고, 조종자를 통해 목각인형이 영혼과 생명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매력”이라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특히 공연 내내 비올라다갑바, 바로크 하프 등 16세기 바로크 악기 연주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경험이다. 필립 피에를로 지휘 아래 바로크 음악 전문단체 리체르카레 콘소토가 연주를 맡았다.

필립 피에를로는 “아리아와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진 기존 오페라 대신 짧지만 강렬하게 음악을 압축했다”며 “무대위에서 성악가, 연주자, 인형을 조작하는 이들이 함께 오페라를 만들어가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라고 말했다.

켄트리지의 또 다른 신작도 관객들 만난다. 영상 설치 작품 ‘더욱 달콤하게, 춤을’(15분·20~29일 오전11시~오후 8시까지 예술극장 1)은 8개 스크린(40m)에서 펼쳐진다.

아프리카 ‘임마누엘 어센블리 브라스밴드’ 연주 음악을 배경 삼아 목탄으로 그린 인간 군상 행렬이 등장하는 흥겨우면서도 장엄한 길을 함께 따라 가다보면 그림이 뒤편을 느낀다. 또 영상 속 등장 인물 ‘누군가’를 따라 수차례 반복해서 걷고, 춤추고, 노래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티켓 가격 ‘율리시스의 귀환’ 7만원, 5만원, 3만원. ‘더욱, 달콤하게 춤을’ 3000원(오페라 관람자 무료). 예매 www.acc.go.kr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삐뚤삐뚤 문자기호...언어폭력에 일침

윤병학 작가 개인전...30일까지 아트타운갤러리



‘언어기호’

언어를 이용해 문자추상 작업을 하고 있는 윤병학 작가가 아트타운갤러리에서 30일까지 개인전 ‘언어기호’를 연다. 이번 전시는 아트타운갤러리 개관 3주년 기념전이다.

현대사회는 무차별적인 언어폭력, 비속어 등이 난무하고 있다. 윤 작가는 해결책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에 있다고 생각한다. 독창적인 조형미와 색채를 구사하는 윤 작가는 왜곡된 언어 사용과 부정적 현상들을 한글자모와 문자기호로 표현해 작품에 담았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언어기호’시

리즈는 혼란한 사회를 이야기하며 작가와 반성을 함께 고민하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가지런히 나열된 문자도형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작품은 붉은 색 등 강렬한 색채와 함께 불규칙적인 배치를 보여준다. 작가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해진다.

윤씨는 전남대 미술학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등에서 전시회를 열어 한국적 추상미를 선보였다. 한국남부현대미술협회 광주지회장, (사)에뵤고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2-7141. /김용희기자 kimyh@



임방울국악진흥회 매월 넷째 토요일 금남로 국악 공연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종채)는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국악’을 주제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 금남로 야외 국악 공연을 갖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임방울국악계 수상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5월 행사는 오는 28일 오후 6시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념관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KBS 개그맨 장기영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광주농악보존협회

(2013년 농악일반부 우수상)의 신명나는 풍물판굿, 김찬미(제13회 명창부 대통령상) 명창의 ‘속대머리’와 ‘흥보가’ 중 ‘흥보 박타는 대목’ 등이 펼쳐진다.

또 이영애(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명창의 ‘호남가’, 국악시동 이승훈 군의 ‘심청가’ 중 ‘뽕더이네 도망가고-’ 공연, 노해현(제20회 대통령상 수상자) 명창의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이 펼쳐진다.

마지막 순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흥겨운 남도민요와 단오놀이이다. 문의 062-521-0731~32. /김미은기자 mekim@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 400여점 전시

6월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접수기간 2016. 6. 7(화) ~ 6. 10(금)

개요 | 작품 공모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6년 6월 23일(목)
-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7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 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